

WEBVTT

00:00:08.975 --> 00:00:11.622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1.647 --> 00:00:16.113

이번 시간에는 김승옥의
무진기행에 대해서

00:00:16.138 --> 00:00:17.926

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

00:00:30.424 --> 00:00:31.911

무진기행.

00:00:32.116 --> 00:00:34.948

무진이라고 하는 도시로 여행 갔다,
이 말이죠.

00:00:35.488 --> 00:00:39.211

무진이라고 하는 곳은
안개 무 자에 나루 진 자.

00:00:39.236 --> 00:00:46.592

안개가 자욱한 나루터에 있는 고향,
도시 이런 뜻이죠.

00:00:47.427 --> 00:00:49.167

김승옥의 고향은 순천입니다.

00:00:49.192 --> 00:00:53.955

그래서 이 무진이라고 하는 곳의
무대는 실제로는 순천이죠.

00:00:54.854 --> 00:00:59.121

그런데 이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서
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

00:00:59.146 --> 00:01:02.675

왜냐하면 이 작품이 쓰인 것이

00:01:02.700 --> 00:01:09.141

이때면 김승옥이 활동하던
1960년대인데

00:01:10.302 --> 00:01:17.965

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
그로부터 50년대라고 하는 것은

00:01:17.990 --> 00:01:20.033

우리가 전후 문학의
시대라고 부릅니다.

00:01:20.058 --> 00:01:23.691

이 시대의 작품들은 피폐한
사회적 상황 속에서

00:01:23.716 --> 00:01:28.747

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아니라

살아남기가 목표이던 때였죠.

00:01:29.065 --> 00:01:31.386

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
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

00:01:31.411 --> 00:01:37.167

손창섭, 장용학, 이호철
또 오상원, 선우휘

00:01:37.192 --> 00:01:39.504

이런 작가들, 전후 문학의 작가들.

00:01:39.529 --> 00:01:43.304

이런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서
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

00:01:43.644 --> 00:01:46.808

패배와 반항의 군상들입니다.

00:01:48.051 --> 00:01:57.678

그러니까 각박하기 이를 데 없고
그 속에서 문학적 서정성, 정서

00:01:57.703 --> 00:01:59.867

이런 것이 살아 있을 겨를이 없죠.

00:02:00.225 --> 00:02:04.769

손창섭의 소설, 소설 제목들이
전부 다 혈서, 낙서족,

00:02:04.794 --> 00:02:07.146

인간시세, 인간동물원초.

00:02:07.261 --> 00:02:12.382

제목만 봐도 그렇단 말이죠.
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

00:02:12.485 --> 00:02:14.821

김승옥이 쓴 소설들.

00:02:14.846 --> 00:02:18.546

김승옥은 1962년에
생명연습이라고 하는 작품이

00:02:18.571 --> 00:02:22.046

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
문단에 나왔는데

00:02:22.071 --> 00:02:26.560

이런 아주 서정적인, 몽환적인
분위기의 문학

00:02:26.792 --> 00:02:28.752

이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.

00:02:28.777 --> 00:02:36.171

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각박하던
시대적 삶을 표현하던 작품들로부터

00:02:36.196 --> 00:02:41.602

김승옥으로 넘어오면서
그의 문학으로 감수성을 되찾는.

00:02:42.005 --> 00:02:45.388

그렇게 김승옥이나 서정현이나
이런 작가들이 그러한데

00:02:45.690 --> 00:02:50.204

감수성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렀던
그런 작품이

00:02:50.229 --> 00:02:53.082

김승옥의 60년대 소설들이었어요.

00:02:54.133 --> 00:03:03.551

서울 1964년 겨울, 이 작품으로
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

00:03:03.576 --> 00:03:08.371

1977년에는 서울의 달빛 0장이라고
하는 소설로

00:03:08.396 --> 00:03:10.356

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.

00:03:10.381 --> 00:03:12.893

이 작가는 다작의 작가,
많이 쓴 작가는 아닙니다.

00:03:12.918 --> 00:03:18.495

그러나 감각적인 문체와 언어를
정확하게 사용하는 것,

00:03:18.520 --> 00:03:21.757

이런 것으로써 문단의
주목을 받았습니다.

00:03:23.232 --> 00:03:25.891

60년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,
잘 아시다시피

00:03:25.916 --> 00:03:30.363

4.19 혁명의 함성과 함께
시작되었죠.

00:03:30.388 --> 00:03:34.082

4.19라고 하는 것은
자유라고 하는 것이

00:03:34.107 --> 00:03:38.764

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
민주주의의 이념을 획득하기 위한

00:03:40.391 --> 00:03:45.511

국가와 국민의 주장을 관철하는
그런 사건이었죠.

00:03:46.653 --> 00:03:50.157

그리고 그 혁명을 통해서 얻은
자유라고 하는 것은

00:03:50.182 --> 00:03:53.643

당대 지식인들에게
큰 희열을 주었습니다.

00:03:53.668 --> 00:04:00.021

그러나 뒤이어서 일어났던
5.16 군사 쿠데타는

00:04:00.305 --> 00:04:03.336

자유라는 개념이 현실화되지
못하게 했습니다.

00:04:03.477 --> 00:04:10.564

군사 정권은 억압된 정치 또는
억압된 사회 상황을 형상하게 했고

00:04:10.589 --> 00:04:18.142

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걸면서
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길로,

00:04:18.167 --> 00:04:20.288

산업 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.

00:04:21.897 --> 00:04:30.975

말하자면 이와 같은 혼란을 거쳐서
일방통행적인 사회로 갔다고 하는 것은

00:04:31.000 --> 00:04:35.200

우리의 삶이 그만큼
고단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

00:04:35.992 --> 00:04:41.357

김승옥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
이때 196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

00:04:41.382 --> 00:04:44.272

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로 분류됩니다.

00:04:44.297 --> 00:04:48.963

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이것이
사회적 방향성에 대해서

00:04:48.988 --> 00:04:52.659

주인공의 강력한 의지를 동반하고
이런 것인데

00:04:52.684 --> 00:04:54.529

김승옥 소설은 그런 게 아닙니다.

00:04:54.554 --> 00:05:01.290

그런데 이런 모더니즘은 단순히
리얼리즘에 대립되는 것이라기보다는

00:05:01.315 --> 00:05:05.118

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
견제한다는 점에서

00:05:05.143 --> 00:05:06.986

리얼리즘과 닮은 점이 있어요.

00:05:07.107 --> 00:05:12.855

하지만 감각적인 문체와 상징적 기법을 중시한다는 점에 있어서

00:05:12.880 --> 00:05:14.125
구별되고 있습니다.

00:05:14.150 --> 00:05:19.568
1950년대 문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등장한

00:05:19.593 --> 00:05:22.986
작가요,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

00:05:25.224 --> 00:05:30.249
김승옥이 작품을 썼던 시대는 과도기였죠.

00:05:30.413 --> 00:05:34.233
그 과도기적 현실 속에서 과도기 속에서는 여러분,

00:05:34.258 --> 00:05:35.450
뭐가 문제가 됩니까?

00:05:35.475 --> 00:05:41.292
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.

00:05:41.317 --> 00:05:43.179
정체성에 대한 고민.

00:05:43.432 --> 00:05:46.920
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

00:05:47.468 --> 00:05:52.744
산업 사회로 치닫고 있는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

00:05:52.769 --> 00:05:57.429
어떤 조직의 문제, 사회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.

00:05:57.454 --> 00:06:00.854
개인의 문제, 개인의 고민과 사회와의 문제.

00:06:00.879 --> 00:06:04.982
이런 것들을 김승옥은 매우 감각적인 문체, 이게 중요해요.

00:06:05.007 --> 00:06:06.917
감각적인 문체로 그렸다.

00:06:07.510 --> 00:06:14.159
감성적이고 개성적인 세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체가 가능하죠.

00:06:14.184 --> 00:06:20.277
의미의 내재화 과정,

내적 의미화 과정

00:06:20.302 --> 00:06:25.448
이런 것을 통해서 작중 인물들이
소설 속에 등장하고

00:06:25.473 --> 00:06:29.673
그리고 현실과 같음을 보이기도 하고
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

00:06:30.608 --> 00:06:33.081
이렇게 되면 이 인물들의
태도라고 하는 것은

00:06:33.106 --> 00:06:37.961
매우 수동적이거나
소극적일 수밖에 없죠.

00:06:37.986 --> 00:06:46.108
내면의 고투가 치열하고 처절하지만
외형적인 양상으로는

00:06:46.133 --> 00:06:49.936
현실에 저항하거나 그것을
치고 나가는, 헤치고 나가는

00:06:49.961 --> 00:06:52.407
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.

00:06:52.432 --> 00:07:00.676
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착한
모순적 상황.

00:07:00.701 --> 00:07:06.703
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
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.

00:07:07.081 --> 00:07:12.374
이것을 또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라고
했을 때 등장인물들은 소극적인데

00:07:12.399 --> 00:07:16.981
그러나 그 속에서 발화하고 있는,
말하고 있는 것은

00:07:17.006 --> 00:07:22.895
그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는
자기 방식의 목소리다, 이런 것이죠.

00:07:24.209 --> 00:07:28.770
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작품
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.

00:07:28.795 --> 00:07:34.003
1964년 10월에 사상계라고 하는
작품에 발표되었죠.

00:07:34.028 --> 00:07:38.092
이 작품은 김승옥이라는 작가의
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

00:07:38.117 --> 00:07:39.655
그런 작품입니다.

00:07:40.236 --> 00:07:42.803
아까 감수성의 혁명이라는
말씀을 드렸는데

00:07:42.813 --> 00:07:46.306
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은
평론가 유정호입니다.

00:07:46.479 --> 00:07:51.239
도회인의 감수성을 뛰어난
언어 구사를 통해서 재구성하고

00:07:51.264 --> 00:07:55.748
미완의 삽화적 구성이라는
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

00:07:55.773 --> 00:08:01.195
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적 매력을
발산하고 있다, 이렇게 보았던 거죠.

00:08:01.220 --> 00:08:07.483
작중 인물들이 무력한 내면의 길을
걸고 있는 것, 이것은 한계다.

00:08:07.508 --> 00:08:10.923
단순히 무진기행의 또는
김승옥의 한계가 아니라

00:08:10.948 --> 00:08:16.498
이 시대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
글을 쓰자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

00:08:16.523 --> 00:08:19.991
한계였을 것이다,
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

00:08:20.472 --> 00:08:23.319
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
분석을 했습니다.

00:08:23.344 --> 00:08:28.973
현실과 꿈, 몽롱한 의식과
깨어난 의식,

00:08:28.998 --> 00:08:34.059
죽음과 삶의 거리, 과거와 현재,
인간과 우주의 연속적인 만남.

00:08:34.084 --> 00:08:38.501
이런 것들이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의
안개 속에서 이루어지고

00:08:38.609 --> 00:08:42.405
인간의 운명과 비극적인
상황에 의해서 표현된

00:08:42.430 --> 00:08:46.129
자의식의 풍경화를 볼 수 있습니다.

00:08:46.154 --> 00:08:50.097

그러니까 어떤 회사원이
고향 무진을 다녀가는 거죠.

00:08:50.560 --> 00:08:54.628

그런데 이한테면 경제적 능력을 가진
아내는 서울에 있습니다.

00:08:54.653 --> 00:08:57.075

그런데 고향으로 간 주인공은

00:08:57.100 --> 00:09:01.169

거기에서 과거 어린 시절에
알던 사람들을 만나고

00:09:01.194 --> 00:09:04.090

또 거기에서 인숙이라는
여자도 만나고

00:09:04.115 --> 00:09:10.680

그래서 안개로 자욱한,
안개로 뒤덮여 있는 이 도시 속에서

00:09:11.208 --> 00:09:12.920

어린 시절을 돌아보기도 하고

00:09:12.945 --> 00:09:15.571

자기가 갈 수 없었던 길에 대해서도
생각하고

00:09:15.596 --> 00:09:19.821

그런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
전화를 받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인데

00:09:19.846 --> 00:09:22.445

이 인숙이라는 여자를
데려오지는 못합니다.

00:09:22.470 --> 00:09:29.191

결국은 무기력하고 생각의 부피만
팽창해 있는

00:09:29.216 --> 00:09:39.059

이런 내적 성향의 인물의 모습을
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.

00:09:40.702 --> 00:09:43.990

무진이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,

00:09:44.444 --> 00:09:48.138

돈 많은 미망인을 부인으로
삼았다고 하는 것

00:09:49.164 --> 00:09:53.233

또 그 부인으로 인해서 제약회사의
전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

00:09:53.258 --> 00:10:00.567

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표면적으로
이 소설의 주인공이 서 있는

00:10:01.064 --> 00:10:04.190
그런 자리를 설명합니다.

00:10:04.358 --> 00:10:07.600
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
귀향 모티프는

00:10:07.625 --> 00:10:10.219
한국 문학의 여러 작품에서
볼 수 있는데

00:10:10.652 --> 00:10:15.594
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그 고향은
어려울 때부터 가지고 있던

00:10:15.619 --> 00:10:18.705
그리움의 공간은 이미 아니었다.

00:10:19.017 --> 00:10:24.971
어렸을 때는 그 공간이 잃어버렸던
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.

00:10:24.996 --> 00:10:28.673
자기 세계를 확립할 수 있는
그런 공간이었는데

00:10:28.698 --> 00:10:34.137
지금 찾아간 그 공간은 이룰테면
안개 자욱한, 그것 자체도 불분명한.

00:10:34.162 --> 00:10:37.653
그러나 그로부터 전혀
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

00:10:37.794 --> 00:10:40.459
그런 혼돈, 카오스의.

00:10:40.484 --> 00:10:45.841
그러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라고
하는 것이

00:10:45.866 --> 00:10:49.329
한 개인의 내적인 질서라든지

00:10:49.354 --> 00:10:54.794
또는 몽환적인 삶 속에 침몰해 있는
인간의 모습이라든지

00:10:54.819 --> 00:10:58.192
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

00:10:59.107 --> 00:11:05.214
안개, 무진의 안개라고 하는 것
이것은 이룰테면

00:11:05.239 --> 00:11:09.439
이런 소설적 분위기를
아주 잘 드러내주는

00:11:10.205 --> 00:11:14.405

그와 같은 배경적 장치라고 할까요?

00:11:14.743 --> 00:11:16.182

이런 것입니다.

00:11:16.598 --> 00:11:25.186

근대화된 사회 또 근대화된 인간의
인식들, 이런 것들을 떠나서

00:11:25.211 --> 00:11:27.795

고향을 다시 돌아가 보자고 하는 것

00:11:27.820 --> 00:11:33.849

이것은 도회인들이 또는 오늘날
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

00:11:33.874 --> 00:11:36.665

어디에서나 꿈꾸는
그와 같은 일이죠.

00:11:36.690 --> 00:11:39.780

우리는 고향으로 쉽게
돌아갈 수도 없고

00:11:39.805 --> 00:11:43.443

고향으로 돌아간들
옛날 그 고향은 아닐지도 모릅니다.

00:11:43.468 --> 00:11:50.559

그러나 무진기행에서 등장인물,
주인공이 싫어했던 것처럼

00:11:51.901 --> 00:11:59.228

삶의 일상적인 터전, 삶의 일반적인
카테고리, 범주를 넘어서

00:11:59.752 --> 00:12:01.575

나를 찾아가는 여행,

00:12:01.914 --> 00:12:04.764

나의 어린 시절을
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.

00:12:04.789 --> 00:12:09.598

비록 거기에서 큰 소득 없이
돌아와야 한다 할지라도

00:12:09.623 --> 00:12:14.985

그와 같은 일상으로부터 탈출을
감행해 본다고 하는 것

00:12:15.212 --> 00:12:20.181

이런 것은 정말 우리 삶에
변화와 충격을 줄 수 있는

00:12:20.206 --> 00:12:21.279

소중한 일이 아닐까?

00:12:21.304 --> 00:12:28.819

그런데 김승옥은 이것을 매우
감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언어들로

00:12:28.844 --> 00:12:33.465

또 이야기 구조로
잘 구조화했다는 거죠.

00:12:34.051 --> 00:12:37.860

그래서 우리가 이 무진기행을
오늘날 다시 읽어도

00:12:37.885 --> 00:12:42.085

이렇게 되면 전혀 낯은 느낌이
없다는 것입니다.

00:12:42.358 --> 00:12:45.333

그래서 여러분, 무진기행을
한 번 더 읽어보시고

00:12:45.358 --> 00:12:50.205

그리고 각자 서울이
고향인 사람들도 있죠.

00:12:50.230 --> 00:12:53.935

그렇지만 그 서울의
도시적인 분위기도

00:12:53.960 --> 00:12:55.166

그 사람에게는 고향입니다.

00:12:55.191 --> 00:12:59.426

여러분, 미국 LA를 가면
거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

00:12:59.451 --> 00:13:04.508

그 향량한 별관 또는 나무가 없는
산을 보고 자랐는데

00:13:04.875 --> 00:13:10.129

그 사람들은 그 나무 없는 산을
보고서 편안함을 느낍니다.

00:13:10.154 --> 00:13:11.778

그게 고향이라는 거죠.

00:13:12.087 --> 00:13:17.153

그런데 대체로 한국인들의
고향은 뭔가 추억이 서려 있는

00:13:17.178 --> 00:13:19.575

이런 곳들이죠.

00:13:19.887 --> 00:13:24.096

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
이런 곳이죠.

00:13:24.398 --> 00:13:29.012

한번 이 작품을 읽으면서
우리의 고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

00:13:29.037 --> 00:13:31.214

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

00:13:31.239 --> 00:13:36.679

우리가 정말 어떻게
이 각박한 시대를 살면서

00:13:36.704 --> 00:13:39.944

내면이 충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?

00:13:39.969 --> 00:13:44.169

이런 생각을 함께해 보았으면
좋겠습니다.